

# 과제 제출

일 자 : 2016. 4. 27

제출자 : 황원주

## 접근성이란 무엇인가?

유시진 “아이와 노인과 미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게 내 원칙입니다.”

강모연 “다행이네요. 셋 중에 하나에는 속해서”

유시진 “안 속하는데?”

강모연 “노인이요”

열마전 많은 인기 속에 종영한 ‘태양의 후예’속 대화 내용이다. 여기서 유시진은 아이와 노인과 미인(?)으로 대표되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게 원칙이라 말하고 있다. 그럼 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오늘의 주제인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지역, 성별, 나이, 지식 수준, 기술, 체험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평가 할 때 쓰이는 말이다.

요즘 나오는 버스들은 저상버스들 이다. 휠체어를 타고서도 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해 준다. 신호등에선 음성 신호도 같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하철에는 노인이나 임산부, 여성을 배려한 좌석이나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점자 로드맵이 건물 입구에 있고, 장애인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종류의 차별 없이 사람들 모두 공공재를 사용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 이기의 문제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유시진 대위 같진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제한 사항을 가진 사용자가 불편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정도를 ‘접근성’ 이라 하고 접근성의 높고 낮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 국내에서 웹 접근성이 적용된 사례

위에서 본 접근성에 관한 개념은 웹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많은 사람들이 차별없이 쉽게 웹 환경에 접근 할수 있게 하는 것을 웹 접근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 정부 주도로 웹 접근성에 관한 노력이 시작 되었다. 2002년 IABF(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을 창립하여 KWCA(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만들었다. 이후 2006년엔 IT종사자들이 ‘한국 웹 접근성 그룹’을 결성하여 접근성의 개념을 개발자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

또한 가관, 민간, 학계의 노력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안에 웹 접근성에 관한 법률이 추가 되었으며 2013년 이 법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 되었다.

이에따라 국내 많은 웹에서 접근성에 관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각종 포털 사이트 에서도 웹 접근성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넬리(네이버 접근성 서비스), 다룸(다음 접근성 서비스)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웹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글에서 웹 접근성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 구글의 웹 접근성에 관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먼저 크게 시각 장애를 가진 사용자와 청각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크롬 브라우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과 크롬 키보드 단축키, 크롬 스크린 리더 지원, 누구나 이요할수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다. 또한 Gmail은 스크린 리더 관련 안내와 키보드 단축키, 다른 메일과 동기화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번역 대화 모드, 대화모드 블로그 게시물 리소스 제공, 영상 채팅 정보 제공, 수화 통역 앱 설치, 보이스 텍스트 스크립트 등의 기능을 통해 웹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사이트 에서도 이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것에 관한 노력이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위 내용을 조사하며 느낀 점

저는 어쩌면 컴퓨터 안의 세계와 현실에서의 세계를 다른 세계로 생각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게임을 즐기고, 업무를 보는 과정 속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일루어 지는 행위 자체는 크게 신경 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스쿨 과정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컴퓨터 안의 세계 또한 사람이 만든 세계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직까지 많은 변화가 있고 안정되어 있지 않을 뿐 컴퓨터를 이용한 세상 속도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성은 이런 컴퓨터 환경 속에서 일하려는 개발자나 프로그래머 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개발자들이 접근성을 높여 개발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배려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물리적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통의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이같은 행위는 배려의 개념이 아닌 당연한 소양 같은 것이라 생각 됩니다. 역시 '아이와 노인과 미인은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